

커져가는 국내증시 불확실성... 안정적 수익 '배당주' 눈길

코스피 지수 6% 가량 떨어질 때 코스피 고배당 50지수, 3% 하락
KT 6.86%, SKT 4.53% 증가 올라
외국인·기관도 관련 종목 순매수세
배당 테마 ETF 수익률도 양호
밸류업 지수로 관심 더 커질 듯

국내 증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방어할 수 있는 배당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증권업계도 하락장에 배당주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하며 고배당주의 비중 확대를 추천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고배당 50지수는 이달 들어 3%가량 하락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가 6%가량 떨어진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선방했다는 평가다. 특히 하락장에서 대표적인 고배당주들의 강세가 이



ChatGPT에 의해 생성된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방어할 수 있는 배당주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는 이미지.

어지고 있다. KT의 주가는 6.86% 올랐으며 SK텔레콤, KT&G 등도 4.53%, 1.84% 상승했다.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들 종목을 사들이고 있다. 이달 들어 기관은 SK텔레콤과 KT를 452억원, 350억원 각각 순매

수했다. 외국인은 KT를 291억원, SK텔레콤을 13억원 매입했다.

통상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지면 기술주와 성장주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경기 방어주인 배당주가 부상하는데 최근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주목도가

더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SK텔레콤, KT, KT&G 등의 배당수익률은 6.3%, 5.0%, 4.79%다.

국내 증시에서 배당을 테마로 한 ETF의 수익률도 양호한 편이다. 한화자산운용의 PLUS 고배당주 ETF의 3개월 수익률은 6.46%에 달한다. 지난달 26일엔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우기도 했다. 이 상품은 유동시가총액 상위 200종목 중 예상 배당 수익률 상위 30위 이내의 고배당 종목들을 선별해 투자한다. 과거 배당 수익률이 아닌 미래 예상 배당 수익률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으로 매년 높은 수준의 배당이 기대되는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변경하고 있다.

키움투자자산운용의 KOSEF 고배당 ETF도 같은 기간 3.77%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 ETF는 재무기준과 시장 유동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종

목 중 배당수익률 상위 20개 종목에 투자한다. 금융주, 통신주, KT&G, 현대엘리베이터 등이 담겼다.

이달 말 공개되는 밸류업 지수로 인해 배당주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밸류업 지수는 향후 기업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상장사로 구성된 지수로, 주주환원에 적극적인 곳들이 편입 후보로 꼽힌다.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최근 금투세 논란에다가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앞두고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이미 놓쳤다는 ‘실기론’이 제기되면서 당분간은 변동성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런 분위기가 고배당주와 가치주에 기회 요인을 만들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말 연초까지는 밸류업 관련주들이 방어 수단이자 동시에 공격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용돈 대신 삼성전자”... 미성년 투자자 급증

미성년 주식계좌, 3년 만에 3.7배 늘어
리틀개미 선호 종목 1위 ‘삼성전자’
해외주식으로는 애플·테슬라 선호

코로나19 이후 개인투자자가 급증하면서 미성년 주식계좌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설날·추석 등 명절 용돈으로 주식을 선호하는 미성년 투자자들이 많아진 가운데, 삼성전자와 애플, 테슬라 등 우량주가 최선호 종목으로 꼽혔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의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1.96% 떨어진 6만4900원에 마감했다. 이는 52주 신저가로 장중에는 6만4200원까지 떨어졌다. 최근 삼성전자의 주가가 급락하면서 과매도 구간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일 ‘검은 금요일’부터 현재까지 21.90% 떨어졌다. 김광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 주가는 최근 조정기를 거치면서 역대급 저평가를 받고 있다”며 “실적 개선세를 고려하면 현재는 잃을 게 없는 주가”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몇 년째 리틀개미(미성년 개인 투자자)들의 선호 종목 1위를 지키고 있다. 국내 주식에서는 삼성전자, 해외 주식에서는 애플, 테슬라가 대표적이다. 올해 2월 리테일 강자인 키움증권이 자사 미성년 고객들의 2022년 이후 첫 종목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삼성전자와 애플, 2024년에는 삼성전자와 테슬라가



ChatGPT에 의해 생성된 ‘명절 선물로 주식을 받은 미성년 투자자’ 이미지.

꼽혔다. 키움증권의 미성년 고객 수는 2019년 4만명을 넘기지 못했으나 지난해 말 기준 48만명까지 증가했다. 지난 2월 KB증권, 4월 신한투자증권에서 진행한 자사 미성년 주식 투자자 분석 자료에서도 삼성전자와 테슬라가 선호도 1위를 차지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보유한 주식 계좌 수는 2019년 88만 7000개에서 2023년 상반기 325만8000개로 급증했다. 만 3년을 채우기 전에 약 3.7배가 불어난 셈이다.

지난 9일 SBS 파워FM ‘두시탈출 컬투쇼’에 출연한 개그맨 최성민은 “(자녀들이) 세뱃돈 받으면 뭐 ‘삼전 사주세요’ 그런다”고 말한 바 있다. 미성년자들의 주식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삼성증권이 지난해 초 17~19세 청소년 300명을 대상으로 ‘세뱃돈을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 온라인

설문을 진행한 결과, 예금성 자산(41%)보다 주식(58%)을 선호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 리틀개미들 역시 해외주식을 주목하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이 올해 들어 지난 3월 27일까지 미성년 고객 거래 상위 10개 종목을 분석한 결과, 미성년 계좌의 경우 해외주식 자산 비중이 20.6%로 나타났다. 전체 잔고 중 해외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7.6%임을 감안했을 때, 상당히 높은 비율이다. 미성년 고객의 해외주식 거래경험도 12.5%로, 전체 고객(8.7%)보다 높았다. 신한투자증권은 “미성년 고객은 성인을 포함한 전체 주식 투자자 대비 해외주식에 관심이 많고 펀드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투자자들의 해외주식 관심이 높아져 자 신한투자증권, iM증권 등은 추석 연휴 기간에 ‘글로벌 데스크’를 운영한다고 알렸다.

유안타증권에서는 추석맞이 ‘주식 선물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한다. 상대방의 이름과 핸드폰 번호만 알면 가족·지인에게 국내 주식 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 금 현물까지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다. 수요가 늘어난 만큼 ‘주식’이 명절 선물로 부상한 모습이다. 이외에도 SK증권이 추석을 맞아 30일간 연 0%의 신용 금리인하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증권사들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신하은 기자 godhe@

삼성전자, 52주 신저가... 목표주가 ‘줄하향’

임원진, 자사주 매입으로 주가 방어

삼성전자 주가가 7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며 장중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삼성전자 임원진이 자사주를 매입하며 주가 방어에 나섰다. 그러나 역부족이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이날 종가는 6만4900원으로 전일 대비 1.96%(1300원) 하락했다. 삼성전자 주가는 장중하락 6만4200원까지 하락하며 52주 신저가를 경신했다. 지난 7월 11일 52주 최고가 8만8800원과 비교하면 약 27.70% 하락한 주가다.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하는 배경에는 강한 외국인 매도세가 존재했다. 지난 8월 9일부터 9월 10일까지 외국인과 기관이 삼성전자 주식을 매도할 때 개인은 순매수세를 보였다. 외국인은 2조 8113억원어치를 순매도했고, 기관도 6856억원을 순매도했다. 반면 개인은 3조 3216억원을 순매수했다.

주가부진기간이 길어지자 삼성전자 임원들은 자사주 매입에 나서며 주가 방어에 뛰어든 모습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노태문 삼성전자 모바일경험(MX) 사업부장(사장)은 지난 9일 자사주 5000주를 장내 매수했다. 취득 단가는 6만9500원으로 총 취득 금액은 3억4750만원이다. /허정원 기자 zelkova@

한종희 디바이스경험(DX) 부문장(부회장)도 이보다 앞선 이달 3일 자사주 1만주를 평균 7만3900원(총 7억3900만원)에 사들였다.

그럼에도 증권가의 삼성전자 목표주가 하향은 계속됐다. 이달 들어 DB금융투자, 현대차증권, 메리츠증권 등이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했다.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이날 한국투자증권은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기존 12만원에서 9만6000원으로 30% 하향 조정했다.

채민숙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밑돌 전망”이라며 “스마트폰 업체들의 메모리 반도체 보유 재고가 다시 13~14주로 증가하면서 출하량이 전 분기보다 감소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도 삼성전자 목표가를 13만원에서 9만 5000원으로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26.92% 하향한 바 있다.

김 본부장은 “3분기 스마트폰과 PC 판매 부진으로 메모리 모듈 업체들의 재고가 12~16주로 증가하면서 하반기 메모리 출하량과 가격 상승이 기대치를 밑돌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도 기존 대비 15% 낮은 37조 9000억원으로 수정했다. /원관희 기자

일반환전 업무 위한 외화계정 명확화

유권해석 통해 일반환전 할 경우
증권사 명의의 거주자계정 사용 가능

일반환전 업무를 위한 외화계정이 명확해지면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증권사)들이 일반환전 서비스 시행을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1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7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통해 일정요건을 갖춘 증권사에게 대고객(개인·기업 불문) 일반환전을 허용했다.

하지만 증권사가 기존 투자목적환전을 하는 경우에는 외화증권투자전용 외

화계정을 사용한 반면, 일반환전을 할 경우 사용할 외화계정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일반환전 업무 준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기재부가 지난 8월 유권해석을 통해 일반환전을 할 경우 증권사 명의의 거주자계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방법을 명확히 함에 따라 업계는 일반환전 서비스 시행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원관희 기자

‘삼성밀당다람쥐글로벌EMP’ 등
2년 수익률 톱3에 이름 올라

삼성자산운용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용 자산배분펀드(Balanced Fund) 18종 중에서 자사 상품이 2년 수익률 전체 1~3위를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삼성밀당다람쥐글로벌EMP의 2년 수익률이 22.6%로 같은 유형 상품 중 1

위를 기록했다.

삼성EMP리얼리턴은 16.9%, 삼성평생알아서분할매매EMP는 16.2%로 각각 2위와 3위에 올랐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본인의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특정 기간 동안 결정하지 않을 경우 금융사가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에 따라 해당 적립금을 자동으로 운용하는 제도다. /원관희 기자